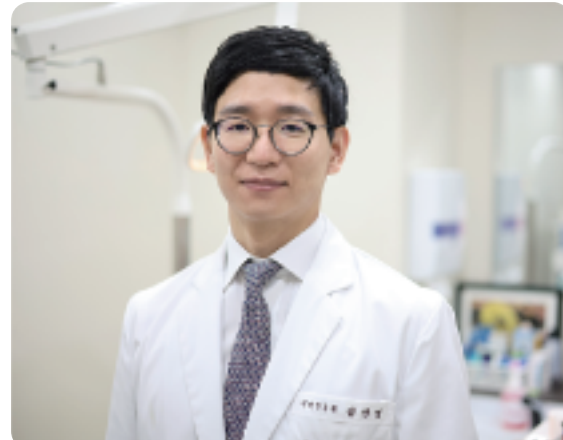


세상은 잠깐 머물다 떠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고향 찾아가는 길에 잠깐 들른
어느 아름다운 한 여로(旅路)일 뿐입니다.

- 성전스님 -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 인공지능 기반 수면무호흡증 연구 과제 수주

이비인후과 김진엽 교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임상현장 수요 연계형 중개연구사업에 선정되어, 총 2년 9개월간 7억 9천만 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주했다. 이번 과제는 ‘인공지능 기반 수면무호흡증 차세대 바이오마커 분석 및 예측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진행되며, 김진엽 교수가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참여한다. 공동 연구기관으로는 전남대학교 병원 양형채 교수와 의료 인공지능(AI) 진단기업 허니냅스가 함께 참여했다. 김진엽 교수는 “본 연구과제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면무호흡증의 차세대 바이오마커를 분석하고 검증하며 실제 임상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한 차세대 바이오마커는 환자의 수면무호흡증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치료 반응성을 예측하여 수면무호흡증의 정밀의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익명의 불자 두 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3억 원 기부 회향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다시 한번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큰 감동을 경험했다. 지난 6월 12일 익명의 불자 두 분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총 3억 원의 발전기금을 회향하며 불교병원의 미래를 밝히는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이어주었다. 과거 완화의료센터 병동 개소를 위해 고액을 보시한 바 있는 불자는 또 다른 불자와 함께 병원을 찾아 소중한 후원을 이어주어 이번 기부는 특히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두 분의 회향은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의 실천으로 병원의 곳곳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올해로 개원 20주년을 맞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2005년 개원 이래 병원의 건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스님과 불자 등 불교계의 자비심과 보시공덕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두 분의 기부 회향은 단지 재정적 지원을 넘어 불교병원의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빛나게 하는 상징적인 기부로 그 의미를 더 했다.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지도법사 혜능스님, 작품 2점 기증

혜능스님이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작품 두 점을 기증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은 ‘빛_지구촌’과 ‘빛_유물터’로 불교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혜능스님은 하나의 캔버스가 아닌 여러 장의 그림 조각을 겹쳐 작품을 구성함으로써 삶과 죽음 그리고 윤회의 순환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이 작품들은 병원을 찾는 이들에게 마음의 평온과 내면의 성찰을 유도하며 따뜻한 치유의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혜능스님은 현재 경산 제석사 주지스님이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지도법사로서 병원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전등사 이주민 문화축제에게 한방의료봉사 펼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지난 6월 15일 강화도 전등사에서 열린 ‘제20회 이주민 문화축제’에 참여해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지원은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진료상담과 침 치료, 한방의약품 제공 등 다양한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은 앞으로도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방의료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소외 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간호PEM위원회, 환자중심 실천 캠페인 ‘먼저 다가갑니다’ 전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간호PEM위원회가 환자중심 병원문화를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먼저 설명하기’, ‘먼저 물어보기’ 등의 실천을 통해 환자에게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환자경험평가 문항 중 자체 평가 점수가 낮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항목을 부서 별로 함께 선정하였으며, 해당 문항에는 투약 및 치료과정 설명, 병원생활 안내, 퇴원 후 주의 사항, 진료 지연 시 안내 등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핵심 커뮤니케이션 항목이 포함됐다.



간호PEM위원회는 앞으로도 환자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는 따뜻한 병원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교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의료정보팀은 지난 6월 9일과 10일 양일간 ‘스마트한 업무활용을 위한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주제로 정보근앤컴퍼니 정보근 대표를 초청해 교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생성형 AI와 ChatGPT 프롬프트 작성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법을 실습 중심으로 다루며 높은 관심을 이끌었다. ‘교직원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은 오는 7월 18일까지 업무 효율 향상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병원 환경 구현을 위한 실무 중심의 다양한 주제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교직원 대상 ‘2025 통증 캠페인’ 성료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6월 18일 본원 지하 1층 교직원 식당 앞에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2025 통증 캠페인’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통증 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완화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통증 바로 알기 O·X 퀴즈 ▲정보 리플렛 배부 ▲추억의 뽑기 이벤트 ▲호스피스하면 떠오르는 문구 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에는 250여 명의 교직원이 참여해 통증과 완화의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며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통합적 완화의료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개원 20주년 기념 특별 코너

그땐 그랬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20년의 이야기

지난 시간 동안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병원이 걸어온 길을 함께
되돌아보아요.

월요일 아침 조회
2007. 11. 13.

